



여수시청 송제언, 인라인 스피드 국가대표 선발

DTT200m 1위 쾌거...오는 8월·10월 메달 획득 나서
세계 스피드 선수권·아시아 롤러스케이팅 선수권 도전

여수시청 소속 인라인 스피드 선수 송제언(24)이 DTT(듀얼타임트라이얼)200m 대한민국 국가대표로 선발됐다. 이로써 오는 8월 세계 스피드 선수권대회(이탈리아)와 10월 제19회 아시아 롤러스케이

팅 선수권대회(중국)에 출전해 메달 획득에 도전한다. 시에 따르면 지난 7일 충북 제천 롤러경기장에서 대한롤러스포츠연맹 주최 인라인스피드 국가대표 선수 선발전이 열렸다.

이날 송제언은 단거리부문 200m에서 17초397의 기록으로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하면서 세계대회 진출권을 따냈다. 같은 여수시청 소속 이성진 선수는 1000m 부문에서 2위, 이해원 선수는 E10000m에서 3위를 거두기도 했다. 여수시청 성낙준 롤러팀 감독은 "평소 힘든 훈련에도 묵묵히 자신의 기량을 다져온 선수들이 이뤄낸 결과"라며 "앞으로 있을 세계관 대회에서도 체계적인 훈련으로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한편, 지난 3월에는 제43회 회장배 전국 학교 및 실업팀대항 인라인 스피드대회에서 이우진, 이해원, 심수정, 문지윤 선수가 팀주월 2000m에서 1위를, 이해원 선수는 P5000m에서 2위, 이성진 선수는 1000m 3위, 문지윤 선수는 P5000m 3위의 성적을 거둔 바 있다.

여수=김현근 기자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의 김하성이 10일(현지시간) 미 뉴욕주 뉴욕의 시티필드에서 열린 2023 메이저리그 뉴욕 메츠와의 경기 6회 초 우전안타를 치고 있다.

SD 김하성, 4경기 연속 안타+시즌 첫 도루 신고

샌디에이고, 메츠에 4-2 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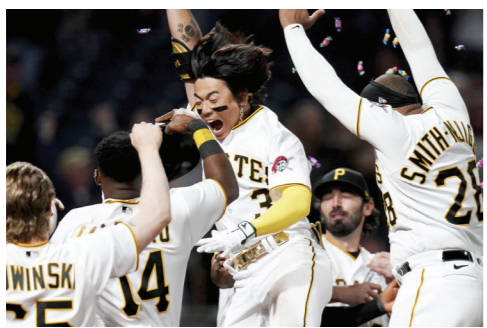
김하성(28·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이 4경기 연속 안타를 쳤다. 김하성은 12일(한국시간) 미국 뉴욕주 시티필드에서 열린 2023 메이저리그 뉴욕 메츠와 경기에서 6번 타자 2루수로 선발 출전해 3타수 1안타를 기록했다. 지난 9일 애틀랜타 브레이브스전부터 4경기 연속 안타를 이은 김하성의 시즌 타율은 0.289로 소속 상승했다. 김하성은 2회 무사 1루 첫 타석에서 상대 선발 데이비드 피터슨의 초구 작구에 희생번트를 대 1루 주자 제이크 크로넨워스를 2루로 보냈다. 하지만 후속타가 타지지 않아 득점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4회 2사 1루에서 폴카운트 승부를 벌였지만 가운데로 들어온 6구째 체인지업을 지켜보다가 삼진을 당했다. 침묵하던 김하성의 방망이는 2-1로 앞선 6회 깨어났다. 2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피터슨의 5구째 바깥쪽 슬라이더를 공략해 우전 안타를 쳤다. 누상에 나간 김하성은 2루를 훔쳐 시즌 첫 번째 도루도 신고했다. 후속타자 루이스 캠퍼사노가 2루수 땅볼로 잡혀 김하성이 홈에 들어오진 못했다. 8회 2사 1루에서는 KBO리그 출신인 브록스 레일리과 마주섰지만 2루수 땅볼로 잡혔다. 한편, 샌디에이고는 9회초 터진 잰더 보가츠의 좌월 투런포에 힘입어 메츠를 4-2로 눌렀다.

뉴시스

배지환, 메이저리거서 선보인 한국산 '배트플립'

"꿈을 꾸는 것 같다"



피츠버그 파이리츠의 배지환(가운데)이 11일(현지시간) 미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의 PNC 파크에서 열린 2023 메이저리그 휴스턴 애스트로스와의 경기 9회 말 끝내기 3점 홈런을 친 후 동료들의 축하를 받고 있다. 배지환의 끝내기 홈런이 파이리츠는 7-4로 승리했다.

배지환(24·피츠버그 파이리츠)이 메이저리그(MLB)에서 첫 끝내기 홈런을 터뜨린 후 크게 기뻐했다. 배지환은 12일(한국시간)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의 PNC파크에서 열린 '2023 메이저리그(MLB)' 휴스턴 애스트로스와의 홈경기에서 1번타자 겸 2루수로 선발출전, 9회말 끝내기 홈런포를 날려 7-4 승리를 이끌었다. 배지환은 4-4로 팽팽하게 맞선 9회말 1사 1,

2루에서 극적인 스리런 홈런을 터뜨려 승리의 주역이 됐다. 배지환이 메이저리그에서 끝내기 홈런을 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배지환은 큰 타구를 때린 후 1루로 달려가며 공을 바라봤고, 휴스턴 마무리 라이언 프레슬리는 홈런임을 직감한 듯 고개를 떨궜다. 배지환은 허공에 배트를 힘차게 던졌고, 배트는 3바퀴 이상 회전한 후 그라운드에 떨어졌다. 배지환이 홈 베이스를 밟자, 피츠버그 동료들이 그의 머리와 몸을 때리며 승리의 기쁨을 나눴다. 메이저리그에서 배트플립은 불과 수년 전까지만 해도 금기시되는 행동이었지만, 점차 기쁨을 표출하는 타자들의 수가 늘어나고 있다. 배트플립을 보면 보복구를 던졌던 투수들도 이제 그 빈도가 확연히 줄었다. 메이저리그 타자들은 배트를 가볍게 던지거나, 던지면서 포효하는 게 전부다. 하지만 배지환은 공중 3회전 배트플립으로 한국산 '빠던'(배트 던지기)을 시전했다. 배지환은 경기 후 인터뷰에서 "꿈을 꾸는 것 같다. 오늘 못 쳐서, 내가 끝내고 싶은 마음이 컸다"고 말한 후 "강정호 선배가 피츠버그에서 뒀 때 앤드루 매카친의 '슬램덩크 세리머니'를 봤는데, 내가 그 세리머니를 하게 될 줄은 몰랐다. 오늘 해냈다"고 기뻐했다.

뉴시스

해트트릭 이금민, 선배 조소현 A매치 골 기록 넘어섰다

잠비아와 평가전 2연전에서 5골 폭발 매치볼 수집... "은퇴 전 더 하고파"

잠비아전에서 해트트릭을 기록한 이금민(브라이튼)이 대표팀 베테랑 조소현의 A매치 득점 기록을 넘어섰다. 이금민은 지난 11일 용인미르스타디움에서 열린 잠비아와 친선 경기 2차전에서 3골을 넣어 5-0 대승을 이끌었다. 이금민은 전반 31분과 후반 32분에 페널티 킥을 성공시켰다. 후반 8분에는 박은선의 헤더 패스를 받아 낮게 깔리는 슈트로 골망을 흔들었다. 앞서 이금민은 잠비아와 1차전에서도 2골을 넣는 등 절정의 골 감각을 과시했다. 잠비아 2연전에서 5골을 추가한 이금민은 A매치 80경기 출전에 26골을 기록했다. 2013년 3월 키프로스컵 조별리그에서 남아공을 상대로 A매치 데뷔골을 넣었던 이금민은 10년 만에 26골에 도달했다. 이로써 이금민은 대표팀 선배 조소현(토티넘)을 넘어섰다. 조소현은 144경기 25득점을 기록 중이다. 이금민은 이번에 조소현을 넘어 역대 A매치 득점 순위 5위로 올라섰다. 조소현이 144경기 66골로 1위다. 전가율이 101경기 38골, 유영아가 87경기 32골, 차성미



11일 경기 용인미르스타디움에서 열린 여자축구 한국 대 잠비아의 친선경기, 후반 한국 이금민이 페널티킥 추가골을 넣고 있다.

가 55경기 30골로 뒤를 잇고 있다.

A매치 득점 순위 5위에 오른 이금민은 잠비아전에서 쓴 공(매치볼)을 선물로 받았다. 매치볼은 경기 종료 후 심판이 수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경기에서 해트트릭을 기록한 선수에

게 기념으로 제공하기도 한다.

이금민은 "매치볼은 처음 받아본다. 이런 기회가 은퇴 전에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며 더 많은 골을 넣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뉴시스

손흥민 단짝 해리 케인 "손흥민, 전적으로 신뢰"



손흥민의 토트넘 홋스퍼 단짝인 해리 케인(잉글랜드)이 손흥민의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100호골을 축하하며 그를 전적으로 신뢰한다고 강조했다.

100호골에 "골 모두 직접 봤다" "함께 좋은 성적으로 시즌 마무리"

케인은 지난 11일(현지 시각) 영국 매체 풋볼 런던과의 인터뷰에서 "손흥민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좋은 선수"라며 "나는 오랜 기간 손흥민과 함께 뛰었고 손흥민이 넣은 모든 골을 직접 봤다"고 말했다. 그는 "손흥민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매우 열심히 한다. 손흥민은 좋은 사람이고 스스로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케인은 또 "손흥민은 팀 분위기가 좋지 않을 때도 훈련장에 긍정적인 힘을 불어넣는다"며 "함께 뛰는 것은 행운이다. 이번 시즌을 좋은 성적으로 마무리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뉴시스

SSG 김광현, 어깨 염증으로 1군 제외... "열흘 뒤 등판 가능"

한화전 등판 이후 어깨 불편함 느껴

프로야구 SSG 랜더스의 좌완 에이스 김광현(35)이 왼쪽 어깨 염증 증세 때문에 한 차례 쉬어간다. SSG는 11일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열리는 2023 신한은행 쏠 KBO리그 삼성 라이온즈와의 경기를 앞두고 김광현을 1군 엔트리에서 제외했다. SSG 관계자는 "김광현이 8일 대전 한화 이글스전 등판 이후 왼쪽 어깨에 불편함을 느꼈다. 10일 대구에서 정밀검사를 진행한 결과 왼쪽 어깨 활액낭염 염증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심각한 상태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이 관계자는 "10일 뒤에는 등판이 가능한 상태라는 소

견을 들었다"고 전했다.

지난 1일 KIA 타이거즈와의 개막전에 선발 등판해 5이닝 4피안타 3탈삼진 3볼넷 1실점으로 호투해 승리를 따낸 김광현은 8일 한화전에서 3이닝 8피안타(1홈런) 5실점으로 무너졌다. 한화전에서 부진한 어깨 상태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2023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에 참가하는 등 시즌 초반부터 강행군을 펼친 김광현은 이번엔 한 차례 등판을 거르며 한숨을 돌릴 전망이다. 김광현의 빈 자리는 신인 송영진이 메운다. 2023년 신인 드래프트에서 2라운드 전체 15순위로 SSG 지명을 받은 송영진은 올해 시범



경기에서 4경기 등판, 6이닝을 던지며 2실점(1자책점)으로 호투해 개막 엔트리에 승선했다. 정규시즌 경기에서 두 차례 볼펜으로 등판한 송영진은 4%이닝을 던지면서 실점을 기록하지 않았다. 8일 한화전에서 김광현의 뒤를 이어 마운드에 오른 송영진은 3이닝을 무실점으로 틀어막아 팀 역전승의 발판을 닦았다.